

트럼프 “김정은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비핵화 협상 낙관론’ 제기
3차 회담·대화 재개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생에너지 관련 연설을 위해 아이오와주로 이동하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친서 전달 시점은 10일이다.
백악관 홈페이지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과 만나 “방금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나는 우리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서한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 서한을 확실히 보여 줄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멋진 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 서한을 어제 받았다”며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북미 비핵화 협상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간 핵실험은 없었고, 주요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며 “내가 처음 취임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엉망진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인질을 돌려받았고,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이 그곳에 있다”며 “김 위원장 지도하에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췄다. 이를 누구보다 더 느끼는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그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자체에 대해서도 “인민들은 멋지고, 영토는 대단하고, 러시아와 중국,

남한 사이의 위치는 놀랍다”고 표현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에 대해서도 “그동안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며 “핵 실험은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그가 유발한 건 단지 아주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나는 보다 추후로 두고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상 간 회담 전 실무라인을 통한 협상 진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김 위원장은 내게 한 말을 지켰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가 보낸 서한은 매우 아름답다. 매우 따뜻한 서한이고 매우 멋진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과

관련해 “중앙정보국(CIA)의 김 위원장의 형제, 또는 이복형제에 대한 정보를 봤다”고 발언했다.

김정남의 CIA 정보원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는 김 위원장에게 ‘내 후원 하에선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내 후원 하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복형제를 살해했다고 보는가’ 등 ‘김정남 암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일에 대해 모른다”며 “내가 아는 건 (김 위원장과는) ‘내 후원 하에선 그런 일(CIA설)이 일어나지 않을 관계’라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일에 대해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뉴스



WSJ, 대미투자 감소세로 전환
지난해 초까지 투자 사상 최고
미중 갈등 심화·규제 강화 원인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때 환영 받았던 중국 자본이 ‘독’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자본은 막강한 자금력은 물론 투자 유치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까다로운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 쉽게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환영을 받았다. 지난해 초까지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투자 승인 권한을 강화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는 자취를 감췄다. 시장조사업체 로뎀에 따르면 기업 인수를 포함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6년 460억달러(약54조원)에서 2018년 50억달러(약6조원)로 급감했다.

중국 자본들은 미국 투자를 철회하고 미국내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미국 정부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 형태를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 자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을 두려는 추세다. 이미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미국 기업들은 투자 유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중국 투자자를 퇴출하려는 모양새다.

우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파일럿 AI랩스는 2015년 중국 국유기업인 중관춘(中關村)개발그룹(ZGC)이 주요 주주인 중국 단화캐피탈(현 디지털 호라이즌)을 첫 대형 투자자로 유치했다.

하지만 파일럿 AI랩스는 이후 중국계 투자자로 인해 미국 정부와 협력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자 지분 판매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ZGC를 미국의 기술과 인재를 빼돌리려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고 기술한 뒤 디지털 호라이즌을 통해 미국 지적재산권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디지털 호라이즌은 지난 2015년 파일럿 AI랩스를 포함해 수많은 미국 스타트업에 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다.

디지털 호라이즌은 파일럿 AI랩스의 환매 요구를 거부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사옥에 중국어 간판을 없애고 중국 국기도 철회하는 등 숨 사리기에 나섰다.

아울러 또다른 중국계 투자자인 시노베이션 벤처스도 실리콘밸리 팰앨토에 위치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미국내 투자를 중단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내 46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노베이션 벤처스 측은 WSJ에 주요 투자자들의 이탈로 미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사업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자본을 미국 신생 기업에 소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영위하는 데이비드 카오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WSJ에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투자자들이 거의 없었다면서 사람들을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WSJ는 지난해 가을 트럼프 행정부가 Cfius의 승인 권한을 강화한 것과 발맞춰 실리콘밸리 내 기업, 투자자들과 비공개로 만나 중국과 거래가 거저를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고도 전했다. 이 비공개 회동에 참여한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Cfius의 승인을 얻어야 할 어떠한 거래도 회피하기 위해 자금조달시 중국 투자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유명 검색엔진 회사 바이두의 자금 지원을 받는 벤처캐피털 바이두벤처스는 Cfius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투자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희망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다른 투자자를 통해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의견결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회사 정보 접근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거물인 알리바바도 미국 바깥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는 Cfius가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담뱃의 지분을 7%만 인수하기도 했다. 담뱃은 당시 가장 큰 투자자였던 알리바바 대신 다른 투자자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담뱃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우는 우리는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

“전세계 핵탄두 수 1만3천880발 그 가운데 北은 20~30발 보유”

일본 닛케이 신문 지적

세계 9개 핵보유국이 6월 시점에 가진 핵탄두는 1만3천880여발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닛케이 신문은 12일 일본 나가사키(長崎) 대학 핵무기 폐절연구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보다 570발 정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핵탄두가 감소세에 있지만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에서는 오히려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센터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관과 연구자의

문헌을 토대로 핵탄두 보유 실태를 추계했다.

전반적으로 핵탄두가 감소한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개발협정(新 START)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로 약 6천500발이며 다음이 미국으로 6천185발이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 300발, 중국 290발, 영국 215발, 파키스탄 150발, 인도 130발, 이스라엘 80발, 북한은 20~30발 순이다.

보고서는 핵군축을 향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정체하는 속에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이 핵탄두 운반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평양북쪽에서 시험 발사된 신형미사일. 뉴스

아울러 보고서는 양도 문제지만 핵무기의 업그레이드로 질도 향상하면서 실제로 핵탄두를 사용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요시다 후미히코(吉田文彦) 폐절연구센터 센터장은 “(핵보유국)서로 의심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핵 군비확장의) 악순환에 빠질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캠핑카 주문 제작·판매

푸드트럭 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회차 중용·수입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1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전국 이동 가능 062)522-2424 전담 전 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여성상담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페셜/석면철거 정부허가업체입니다. 민원과 상습합을 기업년으로 깔끔한 뒷처리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 스페셜 석면 철거 전문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집수리 및 미니포크레인(압박기 보유)
▲ 인력상당환원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타이티안 유기농 노니주스

신이 주신 선물 내음을 살리는 '노니'

진한 노니주스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노니주스
무방부제, 유색소, 향료

USDA ORGANIC

미국 직수입 100%
디자인 등록번호 제 30-1002825호

구입 문의 ☎ 062)375-8494 H. 010-3605-2926
수입원 - 광송무역 / 대리점 모집
info@gstkorea.biz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보증보험 가입업체 - 포실메시시 제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의 적용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

고객만족 1등 주의!

중고차 최고가 매입

무료 출장 감정해 드립니다 당일 이전 즉시 현금 지급

돈 없이 중고차 무조건 구입 가능

[무보증 할부 가능] 달러사원 모집

대표 **한경호** (주영서모터스 총괄대표)
☎ 010-3605-5699